



길림성 2024-2025 새 빙설시즌 개시 및 제 30 회 길림무송빙설축제 개막식 거행

— 황강 새 빙설시즌 개시 선포 호옥정 축하 주국현 참석



▲ 11월 23일, 길림성 2024-2025 새 빙설시즌 개시 및 제 30 회 길림무송빙설축제 개막식이 길림시 북대호스키휴양지에서 개최되었다. 성당위 서기 황강이 참석하여 새 빙설시즌의 정식 개막을 선포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당인 호옥정이 축사를 했다.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참석했다.

11월 23일, 길림성 2024-2025 새 빙설시즌 개시 및 제 30 회 길림무송빙설축제 개막식이 길림시 북대호스키휴양지에서 개최되었다. 성당위 서기 황강이 참석하여 새 빙설시즌의 정식 개막을 선포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당인 호옥정이 축사를 했다.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참석했다. 북대호스키휴양지는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스키휴양지로서 '스키명승지, 분설천국'으로 불린다. 휴양지는 2024-2025 빙설시즌에 총 길이가 80키로메터에 달하는 74갈래 스키코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예매 수입이 이미 1억 7,000만원에 달한다. 황강은 휴양지 건설계획, 경영운영 등 상황을 현지 조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빙설시즌도 금산은산이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3억명을 빙상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이끈'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길림 빙상스포츠 자원의 우세를 한층 더 발휘하며 더 많은 국제 국내 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츠와 문화관광의 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인기를 더욱 잘 모으고 소비를 더욱 잘 이끌어야 한다. 국가

의 지지를 적극 쟁취하고 형제 성, 자치구, 직할시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우세의 상호 보완과 협력상생을 촉진해야 한다. 황강은 국내외 관광객, 외국적 코칭스태프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길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여 더 많은 친지들이 길림에 와서 빙설을 감상하고 만끽하도록 할 것을 그들에게 바랐다. 빙설장비에서 황강은 우리 성 빙설장비의 연구 개발 생산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길림화학섬유 등 중점기업들이 탄소섬유기술의 혁신 응용을 추진하고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하며 피드백(反饋)에 따라 교체 승격하면서 빙설장비 및 체육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더욱 잘 지원하도록 전력 지지하라고 관련 부문에 요구했다. 황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스키장의 안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케블카 등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응급구조 준비를 잘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호옥정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은 '빙설시즌도 금산은산이다'는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

서 세계적인 빙설 브랜드와 빙설관광 명승지의 목표를 확정했다. 길림성은 한창 빙설운동을 견인력으로 삼고 빙설관광을 버팀목으로 하며 빙설문화와 빙설장비가 협동 발전하는 산업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새 빙설시즌에 길림은 '분설, 정풍(靜風), 무송, 온천'의 독특한 우세와 '장백천하설'이라는 브랜드 집합(矩陣)으로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하고 팔방의 손님을 레우'하는 자세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스키 코스 길이와 전국 1위의 가공(架空) 케블카 수량, 그리고 국내 빙설관광 10위권 목적지인 4개 도시와 5개의 국가급 스키관광휴양지, 수량적으로 전국 1위인 풍부한 자원으로 스키애호가들을 열렬히 포용하고 있다. 우리는 실력으로 '팬들을 흥'하고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흥겹게 찾아오고 만족스럽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축이 길림과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실무협력을 심화하면서 길림을 빙설관광의 '선호지', 빙설경제의 '신고지'로 공동으로 건설하기를 바란다.

행사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성당위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 중국우정 길림성지사당위 서기 손동풍이 공동으로 '장백천하설' 빙설 주제의 우편료금도(郵資圖)를 제작하고 올림픽 우수자들이 무대정과 리건유, 리나와 함께 초청장을 부쳐보냈다.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센터 주임이며 당위 서기인 왕웨이 축사를 했다. 행사장에서는 장춘전정산스키장, 장백산화평스키장, 만달장백산국제휴양지, 만봉동화스키휴양지, 길림만과 송화호스키휴양지와 장춘저유산(這有山) 설국우체국과 영상으로 연결하고 각 분회의장과 실시간으로 상호 교류했다. 그후 성 지도자들은 현장의 기관 간부, 기업 종업원, 학생, 스키애호가들과 함께 전민 빙설행사에 참가했다. 성정부 당초 성원 김옥휘가 활동을 사회했다. 성 지도자들인 리위, 전금진과 성 직속 관련 부문 단위 및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 백산시, 장백산보호개발구 책임자들이 각 회의장에서 행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제 12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 개막

제 12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 개막식 22일 해남 삼아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녕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20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되자 각 대표단과 현장의 3.5만명 관중이 국가 의장대의 입장과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 회기, 제 12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 회기의 입장을 맞이했다. 이어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탄, 향향, 오문 대표단과 대만소수민족대표단이 회장에 들어섰다. 각 대표단은 30초 동안의 선자리 연기로 중화민족 대가정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풍모를 보여주었다. 입장식이 끝나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오성붉은기가 서서히 게양되어 공중에서 나뉘었다. 21시, 왕호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 12 회 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 개막을 선포했다. 순간 박수소리와 환호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삼아시체육중심은 환락의 바다로 되었다. 이어 '중화민족 대가정, 한마음 되어 새 로정서 꿈 이루다'를 주제로 한 문화체육전시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공연은 '천하일맥', '중화일체', '단결일심' 세계 장으로 나뉘어 중화문화의 유구한 력사와 휘황찬란함을 보여주며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단합 분투하여 새로운 로정에서 중국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연은 <조국을 노래하네>의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고 여러 민족 인민들은 다 함께 위대한 조국의 번영창성을 축하했다. 개막식에 앞서 왕호녕이 대회 조

직위원회 전체 성원, 각 대표단 대표와 선수 대표들을 회견하였으며 중국소수민족전통체육문화전, 해남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및 중국특색 자유무역항 건설 성과를 참관했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소수민족전통체육에 깊은 중시를 돌려 제 12 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를 개최할 때 대해 포지했다.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단결분진을 견지하여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훌륭한 실천자로 되고 대회를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즐기고 중화민족이 한가정이 되는 성회로 되게 하며 수정혁신을 견지하여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훌륭한 선양자로 되고 대회를 중화문화, 중화문명을 전면적으로 전시하는 성회로 되게 하며 일심협력을 견지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훌륭한 건설자로 되고 운동회를 자신감을 불려 일으키고 인심을 결집하고 민심을 고무하는 성회로 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강국건설, 민족부흥을 위해 함께 분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통전부 부장인 서태봉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중앙통전부 부부장이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인 반악이 개막사를 하고 해남성당위 서기 풍비가 환영사를 했으며 국가체육총국 국장 고지단이 개막사를 사회했다. 본 대회는 9일간 진행되며 6,960명의 여러 민족 선수가 18개 경기종목과 170개 표현 종목 시합에 참가한다. 대회 기간 중 민족친목행사와 문화활동이 개최된다. / 신화사

[관련 기사 8면]

우리 나라 삼림피복률 25% 넘었다

2023년말 기준 우리 나라는 삼림피복률이 25%를 초과하고 삼림축적량이 200억립방메터를 초과했으며 연간 탄소 흡수량이 12억톤 이상에 달하고 인공림 면적이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녹색이 가장 많이 증가된 나라로 되었다. 23일, 국가림업초원국 국장 관

지구는 광서 남녕에서 열린 2024년 세계림업대회에서 이런 상황을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는 림초산업의 총생산액이 9조원을 초과해 전 세계 주요 림산물의 가장 큰 무역, 생산 및 소비 대국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 신화사

제 11 진 지원군 련사 유해 곧 귀국

퇴역군인사무부에 따르면 최근 퇴역군인사무부는 한국 국방부와 제 11 진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 인도 사업과 관련해 일치를 달성, 한국측이 11월 28일 중국측에 43명의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 및 관련 유물을 인도할 것이라고 한다. 중한 량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련속 10차례에 걸쳐 938명의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 및 관련 유물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올해는 중한 량국이 달성한 공동인식에 따라 실시하는 제 11번째 인도이며 중한 량국은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를 인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 인민넷



철새들 사해호국가습지 공원서 먹이 찾다

최근년간,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환경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한 데서 도남시의 사해호국가습지공원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락원으로 변했으며 이동하는 철새의 수량이 해마다 늘어나 종류가 이미 200여종에 달한다. 사진은 재두루미가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 길림일보

가 요

내 고향 푸른 락원

작사 곡명 노영
작곡 곡명 노영
가요곡명 노영
가요곡명 노영

길림인민출판사
고흥출판사
고흥출판사
고흥출판사